



올해 4회째를 맞는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3'에 역대 최대인 국내·외 갤러리 102곳이 참여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정신' 살린 '아트 광주13' 흥행 노린다

내달 5~8일 DJ센터... 국내·외 유명 갤러리 102곳 '역대 최대'

소셜커머스 활용 티켓 판매... 해외 참여는 저조 '국제진' 무색

지난해 저조한 흥행 성적으로 존폐 위기를 겪은 '아트 : 광주'가 오는 9월5~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또다시 시험무대에 오른다. 창설 4년 만에 운영단체가 세 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은 올해 '아트 : 광주 : 13'(이하 아트광주13)은 광주시가 운영파트너로 (사)한국미협을 선정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아트광주13은 그동안 열렸던 행사보다 참여갤러리가 대폭 늘면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판매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미협이 뒤늦게 운영단체로 결정되면서 예술감독 선임과 참여 갤러리 선정이 늦어지고, 홍보 등에서 미흡한 모습을 드러내 흥행에서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역대 최대 국내·외 갤러리 102곳 참여=아트광주13이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점은 참여 갤러리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행사에는 해외 갤러리 15곳 등 국내·외 갤러리 102곳이 참여한다. 참여 갤러리가 창설 첫째인 2010년 50여곳, 2011년 70여곳, 2012년 80여

곳에 머물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국내 유명갤러리의 가나아트센터, 가인갤러리, 샘터화랑, 학고재, 진화랑 등을 비롯해 서울·경기지역 갤러리 50여곳이 참여하는 점도 눈에 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갤러리 대신, 갤러리 D, 갤러리 연, 갤러리 자라아트, 나인갤러리, 제회갤러리 등 14곳이 참가한다.

참여 갤러리만큼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기대된다. 국내 생존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이우환, 여수 출신으로 '한국의 로트렉'이라 불리는 고(故) 손상기를 비롯해 이철중, 이세현, 박영남 등 국내 작가와 세계적인 판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급세기 최고의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장사오 타오 등 유명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광주시의 바람처럼 한국미협의 미술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갤러리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해외 갤러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다. 지난해(30여곳)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서 국제아트페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운영단체와 예술감독 선정이 늦어지면서 예견됐다. 독일 갤러리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갤러리들이 모두 아시아권인 것도 아쉬운 점이다.

◇광주 정신 부각=아트광주13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문성의 상징으로 광주를 부각시켜 그동안 모호했던 아트광주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전략이다. 타이틀도 '아시아상'과 '아시아의 인문성'으로 잡았다.

조직위는 '동남아시아 대표 작가 특별전'과 '한중일 대표 작가 특별전'을 통해 이 같은 대주제를 조명한 계획이다. 한중일 특별전에는 정연두, 양큐동, 메이로 고이즈미 등이 참여하고, 동남아시아 특별전에서는 간 영화재 황금리상을 수상한 아핏자퐁 위라크세네, 로테르담 국제 필름 페스티벌 초청 작가 자크라왈 닐탈롱, 카셀 도큐멘타 초청 작가 프라차야 핀통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안창홍, 서정민, 김성룡, 신수혁, 유근영, 김동유, 천경우, 장승효 등이 참가하는 특별전시도 준비돼 있다.

◇소셜커머스 활용 티켓 판매=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올해 입장객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500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그 이상의 흥행도 노려본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무료 부스를 없앤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트광주는 그동안 대부분 화랑을 무료로 초청해 사실상 부스 판매수입을 포기했다. 무료 부스가 아트광주의 위상을 하락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트광주13에서는 20여곳의 화랑이 200만~300만원의 부스비를 내고 참가했으며, 나머지 갤러리들은 작품 판매금액의 15%를 부스비로 내기로 했다.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티켓 판매 전략도 선보인다.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14일부터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코리아 등을 통해 일반가(1만원)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다.

F1 머신과 연인인 카레이서도 흥행전략으로 내세웠다. 전시장 한쪽에 F1 머신을 전시하고 이세창과 여자연인인 카레이서를 초청해 팬 사인회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진명 아트광주13 예술감독은 "해외 갤러리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하는 갤러리들은 각국을 대표할 뿐더러, 대주제인 아시아상을 보여주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 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이다."

얼마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유머 한 토막이다. 이를하여 3대 미스터리.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추가됐다. 오는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컨셉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속내'다. 개관을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무슨 속마음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여기에는

계 창조원과 정보원, 어린이 문화원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는 전당 자체의 조직 설립 없이 전당의 5개원을 문화원에 기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당의 격을 확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창작과 연구기능을 하는 창조원과 정보원이 전당의 창작엔진(creative engin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예술의 전당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부 소속기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해 전당의 기관장은

뽀 문화전당, 알랑가 몰라?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6월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문화전당의 컨셉은 물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크게 흐트러 놓고 있어서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은 전당의 중심축인 문화창조원과 문화정보원을 비롯, 어린이 문화원, 아시아 예술극장, 민주평화 교류원 등 5개원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 문화부 산하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명칭을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문화원·제26조2항)으로 변경해 문화원장 밑에 사무국장, 공연예술감독, 전시예술감독을 두고 전시예술감독에

문화부장관이 임명토록 해 전당의 위상 하락이 우려된다. 또 '개발원(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조항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격하시켰다. 총 소요예산 5조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스케일을 무색하게 하는 '물욕'이 아닐 수 없다.

전당이 내로라 하는 국내의 복합문화공간에 담당할 수 있었던 건 창작엔진을 장착한 문화발전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면 전당은 '색깔 없는' 또 하나의 문화시설을 광주에 짓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광주가 해야 할 일은 전당의 명예 회복이다.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강의와 연주의 어울림 '풍당 클래식'

내달 2일부터 강좌· 3기 수강생 모집

지난해 9월 첫발을 댄 '풍당 클래식'이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 2기를 통해 모두 3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풍당클래식'의 특징은 강의와 연주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에 있다. 강의는 오는 9월2일부터 1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호신대 예음홀에

서 열린다.

1·2기 강좌에서 김승일(조선대 명예교수)씨가 맡았던 1교시 '클래식 걸라리아'의 경우 이번에는 곡선환(전남대 명예교수), 임연민(호신대 명예교수), 임홍규(전 광주시향 부지휘자), 임해철(전 광주오페라단장), 김경선(MBC 기획다큐 '안녕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한수지(음악치료 박사)씨가 강사로 나선다.



임홍규 2교시는 15명의 지역 대표 연주자들이 강의와 연주를 이어가는 '렉처 콘서트'로 마련된다.

임해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이올린(이종만 광주시향 악장), 성악(김남경 광주음악협회장, 박계 조선대 교수, 조효중 성악가, 정용선 도르트문트 오페라단원), 국악(성심은 전남대 교수), 첼로(박문경 광주시향 수석), 피아노(문현욱 전대교수, 박재연 조대교수), 합창(이어진 광주시향소녀소년합창단 지휘자, 박현주 호신대 교수), 금관(이유신 광주트럼펫콰이어 예술감독), 재즈(박수용 호신대 교수), 실내악(구재향 호신대 교수), 목관(변성호 호신대 교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수강료 7만5000원. www.pd.htus.ac.kr. 문의 062-650-15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인에게 직접 배우는 문화 강좌

문화재단 수강생 모집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에게 직접 판소리, 침선공예, 전통 음식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31일까지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판소리 강좌는 정춘실, 방성준 판소리 예능보유자에게 민요

농부가와 판소리 심청전, 춘향가의 한 대목을 배운다. 풍물놀이와 정동제 관상농악보유자가 농악 장구와 평과리 가락을 가르치고, 청소년 토요일과 강좌인 가야금 병창은 무형문화재 명망자 예능보유자가 진행할 계획이다.

과목별 매주 1회, 총 15주 과정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062-232-150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총정수 5가 버스도로 대지 777㎡(235)공시지가 17억7천천 대도 9억5천 오피스텔,상가개발역합
- 계림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 (164)건평 3968㎡(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과 유흥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 (124)건평 327㎡ (99) 공시지가 2억 8200 대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 (97)건평 1235㎡ (363) 건물 2층 공시지가 14억 5천 대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원룸,투룸,대지 508㎡ (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소방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 (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가에 대도 11억 6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대도 13억
- 신창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옥,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대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업가능 대도 7억4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6천 대도 2억 3천
- 목포대학 부근 생활주택 84개 허가지역 땅 372평 은행 2억8천 대도5억5천 투자까지 매우좋음
- 함평군 해보면 영업장되는 여관과 접해있는 땅 2층 주거 지역 504평에는 아파트, 생활주택 접합 투지에 최고 대출 4억 대도 10억5천
- 광주와 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점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남 대출 10억 대도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흥센터 옆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건설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 광산구 온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5억5천만
-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169억9천만 최저가14억8천만

단독주택

-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21억
-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감정가1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일야 3642㎡ 매매3,500만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94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접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건물, 정래예식장, 투자족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시육)
- 치명동 광순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시육,전시장)
- 생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725억 (시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담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